

김별아의 문학과 삶



끓는 과? 국문과!

졸업한 지 이십여 년 만에 대학 선후배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내가 다녔던 학교에는 어문학계열 학과들과 철학과, 사회학과, 심리학과, 도서관학과 등이 '문과대학'이라는 단과대학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철학과를 졸업한 친구들의 근황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한 친구는 학교를 졸업하고 시험을 보아 공인중개사가 되어 있었고, 선배 한 분은 수재 구두를 제작해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다. 다른 선배는 정치인이 되어 학교 인근의 지역구에 출마했다 낙선하고 재기를 준비 중이며, 친구 하나는 공부를 계속해 교고의 교수가 되었다는데 엉뚱하게도 철학과가 아니라 경영학과 교수라고 했다.

"철학과는 정말 대단한 과로구나. 철학만 빼놓고 세상일을 다 하네!"

작금에 대전의 배재대학교에서 마련한 '2014학년도 학제개편'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어국문학과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과를 통합해 '한국어문학과'로 개편하고, 프랑스어문화학과는 폐지하며, 해당 학과 교수들은 신설되는 항공운항과, 중소기업컨설팅학과, 사이버보안학과 등의 실용학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라고 한다.

실제로 '구조 조정안'에 다른 아닌 개편책의 핵심은 이른바 '비실용적인', 취업과 직

결되지 않는 전공들의 꼬리를 잘라내는 것이다. 학교의 이 같은 결정에 국문과 소속 재학생 및 총학생회 소속 학생 100여 명이 총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실로 이런 현상은 배재대학교의 일만이 아닐뿐더러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많은 대학에서 국문과를 비롯한 어문학과들과 철학과, 이과 계열의 순수 자연과학 전공들이 폐지되거나 통합되어 '퇴출'당했다. 이유는 단순하고도 선명하다. 이른바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취업이 잘 되지 않는 학과들을 개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가 막히고, 슬픈 일이다. 오죽하면 모국어어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로 규정하면서까지 학과를 통합하려는 것일까? 지금껏 문학과 문화를 연구해온 교수들이 항공과 컨설팅과 보안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배재대의 경우 전신이 1885년 선교사 아펜젤러가 만든 '배재학당'인데, 배재학당의 빛나는 전통이자 자람이 바로 한글연구의 개척자 주시경 선생과 시인 김소월, 소설가 나도환을 배출했다는 것기에 그 쓸쓸함이 더하다.

냉전시대의 산물인 좌우의 이념이 사라진 자리에 등장한 2000년대 한국의 '시대정신'

은 바로 '먹고사니즘'이다. 이른바 IMF사태 이후 신자유주의의 롤리코스터에 탑승하면서 한국 사회는 급속도로 속화되고 몰화되었다. 먹고사는 일이 최우선이라는, 고통스럽지만 너무나 명백한 현실 앞에 가치는 퇴화하고 이상은 조롱거리가 되어버렸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장래 희망이라고 늘어놓는 직업들을 보노라면 미래는 환자와 죄인들이 넘치는 세상이 될 것만 같다. 그 많은 의사와 변호사들이 먹고살아가려면 그만 큼 아프고 나쁜 사람들이 늘어나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몇 해 전부터 엉뚱하게도 '인문학'의 붐이 일었다. 인문학적 상상력과 창조력이 갈려지지 않으면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 때문이었다. 한국은 더 이상 선진국의 제품이나 아이디어를 카피할 수 없는, 다른 나라들의 견제와 추격을 받는 나라가 되었다.

하지만 '실용적' 목적을 가진 인문학 붐의 한계는 명확하다. 인문학은 벼락치기를 하여 배우고 익힐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문학과 철학을 비롯한 순수 학문들이 당장의 발상을 차려주지 않는 것 또한 분명하다. 한편으로는 인문학 전공들을 없애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문학을 강조하는 모순은 진정한 인문학에 대한 물이해로부터 비롯된다.

배재학당을 세운 아펜젤러는 "통역관을 양성하거나 우리 학교의 일꾼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을 내보내려는 것이다"라고 설립 목적을 밝혔다. 백여 년 뒤 학교가 취업대비학원처럼 취급받고, 대학생이 곧 취업준비생이 되어버리는 현실을 예견하는 듯한 일침이다.

기실 이십여 년 전 그때도 사정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내가 전공한 국어국문학과와 별명은 '끓는 과'였다. 불어불문학과와 독어독문학과, 철학과 등도 우리보다 더 '배부른' 형편은 아니었다. 하지만 백석의 시와 루카치의 비평과 춘향전을 반독하며, 달빛으로 바위에 시를 새긴 중세의 이름 없는 음유시인부터 대작가 카뮈와 보부아르의 작품을 읽었다.

헤르만헤세와 토마스만과 카프카의 저작을 감동하며, 유가와 도가와 불가의 동양철학과 데카르트부터 헤겔까지의 서양철학을 탐구하면서 우리의 마음만은 푸짐하고 불렀다.

20년 후 결국엔 문학만 빼놓고, 철학만 빼놓고 별별 일을 다 하며 살게 되었을지언정, 피동피동한 비겟살 같은 일상을 견디게 하는 어떤 힘은 아위었으나 형형한 그때의 영혼으로부터 나온다고 나는 믿는다. 어리석지만, 단호하게. <소설가>

종교칼럼



조발그니 목포 가톨릭대 교수·신부

이름에 대한 단상

먼 시간을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름을 짓는 것은 기도하는 마음과도 같은 것 같다.

한편 이름은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다. 인지주의 심리학자 피아제에 따르면 우리들은 구체적 표상을 통해 대상을 기억하게 된다. '사과'하면 떠오르는 어떤 상이나 의미가 있을 텐데 그것을 머릿속으로 그려 대상을 기억한다. 예를 들어 내가 '김바른'이나 '박그린술'을 떠올리는 순간 내가 '바른이' 혹은 '술아'라고 불렀던 그 학생이 머릿속에 그림처럼 떠오르고 그 아이의 웃는 모습이 영동한 행동이 생각난다. 얼마 전에 20여 년 전 군복무를 하던 당시에 대대장이셨던 분의 전화를 받았다. 지금은 4성 장군으로 군을 지휘하시는 사령관이시다.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부하들과 함께 운동을 하고 식사를 하는 도중에 20년 전 만났던 내 이야기를 했단다. 그리고 그 사령관의 참모 중 한 분이 스마트폰으로 검색하여 내가 신부가 되었고 지금은 대학교에서 교수로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는 것이다. 그 사령관의 기억은 이렇다. 내가 이등병 시절에 대대

장이셨던 그 사령관은 그 부대에서 임기를 마치고 소임 이동을 위해 부대를 시찰하던 중 신학생이었던 내게 와서 자신을 위해 기도를 해주기를 바랬다는 것이다. 본인은 개신교 신자지만 인해 자대에 배치받은 이등병 열차기 신학생에게 기도를 부탁했다. 그 일로 그분의 기억 속의 내 이름은 기도하던 모습과 함께 떠올랐을 것이다.

이름이 남들과 달라 어렸을 적부터 누구든 내 이름을 한번 말하면 기억하였다. 그런 이유로 모난 짓 못하고 학창시절을 보냈을 지도 모르겠다. 한마디로 이름 탓에 모범생이 되었다. 흔치않은 이름 때문에 이름이 불릴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저 선생님은 내 이름을 제대로 부를 수 있을지 불안해했다. 초등학교를 입학할 때부터 '조발레' '조발개' 등 흑어 오자라 생각하며 이름을 세자고 고쳐 부르시는 분도 있었다. 때로는 외국 사람이 아닌지 하며 이름 부르기를 걱정스러워 하시는 분도 있었다. 희한한 이름 탓에 아버지 직업이 '국어교사'로 단정지어지기도 했다. 혹은 이름이 무슨 뜻이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아마도 이름에 대한 관심이

나를 기억하는 '구체적 표상'이 되었을 것 같기도 하다.

천주교에서는 또 다른 이름이 있다. '세례명' 혹은 '본명'이라고 부른다. 얼마 전 현 교황은 자신의 이름을 '프란치스코'라고 정하면서 자신이 어떤 교황으로 살지를 스스로 정하였다. 천주교인들에게 '본명' 혹은 '세례명'이란 그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한 것이다. 그 이름이 예뻐서든 기억하기 쉬어서든 혹은 그 이름의 성인을 닮고 싶어서든 천주교인에게 '본명'은 자신을 교회공동체라는 울타리 안에서 기억하게 하는 또 다른 구체적 표상이며 기도이다. 많은 신자들은 세례를 앞두고 '세례명'이 무엇이 좋을지 물어본다. 또 우연히 만난 신자들은 신부님 나에게 자신을 '요셉', '바로', '안나', '소피아'라며 소개한다. 이는 같은 신자라는 연대이기도 하고 자기를 기억하여 기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기도 하다.

누구에게나 이름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름은 그에 대한 기도이고, 관심이며 기억이기 때문이다.

社說

전두환 추징금 환수 공소시효 넘길 전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부과된 추징금 납부 시효가 오는 10월 말로 다가오면서 광주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 등이 추징금 미납분 및 불법재산 환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5·18 유족회와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 광주진보연대는 22일 전두환씨의 추징금 2205억 원 중 미납분 1672억 원과 불법 재산 환수를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해 추징금 환수와 경호 금지 등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도 채동욱 총장의 지시에 따라 추징금 환수를 위해 TF팀을 구성할 것으로 전해졌다. 주지하다시피 5·18 유혈진압의 장본인인 전두환은 16년 전 대법원으로부터 내란죄와 반란죄, 내란목적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박탈당한 자이다. 그는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으면서 추징금을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파렴치한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전씨에게 국민의 혈세로 경호 등 예우를 해주고 있으며, 국회는 미납 추징금을 징수하거나 강제노역을 시킬 수 있는 2개의 법안을 발의해 놓고도 허송세웠다. 전씨 자녀들은 현재 호와 주택과 건물, 수십만 평의 땅 소유 등 수백억 원대의 재력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가 집권 과정에서 기업인들을 협박해 강제 배양은 수천억 원의 불법자금에 그 일가에게 흘러들어 왔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전씨의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는 그의 주장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

국회는 2개의 법안을 6월 임시국회서 통과시켜 전씨 일가의 불법재산을 몰수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강제노역을 시키야 한다. 정부 역시 경호를 단장 철회하고, 오히려 범법자로서 그에 상응한 죄값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 아니라면 민주와 사회정의를 스스로 부정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정부, SOC 적극 투자로 지역경제 살려야

전국 14만 상공인의 대표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 및 조선업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철도·도로 등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사의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해법으로 보여져 공감하는 바이다.

지난 22일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3 전국상공회의소 회장회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엔저 현상 적극 대응 등을 촉구하는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다. 현재 광주·전남 경제는 건설과 조선업의 오랜 부진으로 총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건설업은 지역경제의 핵심 기반인데도 최근 몇 년 동안 주택 및 건설경기의 침체로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대불산단 등 전남 서남권을 중심으로 한 조선산업도 지역경제의 한 축을 떠받들고 있지만 세계적인 장기 침체로 수출물량이 줄어

들어 근근이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도 대수롭이 여기지 않고 있다. 복지를 표방하는 박 정부가 상대적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 건너 불구경이다. 전국 상공인 대표들이 대책을 촉구하고 나서 는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하지 않다.

광주·전남은 지금까지 사회간접자본 등 여러 부분에서 혜택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전국 상공인들이 주문하듯이 정부가 주목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다. 현재 광주·전남 경제는 건설과 조선업의 오랜 부진으로 총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건설업은 지역경제의 핵심 기반인데도 최근 몇 년 동안 주택 및 건설경기의 침체로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대불산단 등 전남 서남권을 중심으로 한 조선산업도 지역경제의 한 축을 떠받들고 있지만 세계적인 장기 침체로 수출물량이 줄어

또한 미래성장산업인 조선업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 공공부분 선박 조기 발주, 선박공공공사 설치 등 활성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전국 상공인 대표들의 총심 어린 촉구이 이젠 정부가 화답할 차례다.

無等鼓

21일 두산과 넥센의 프로야구 잠실경기에서 양팀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물러나와 충돌 직전까지 가는 사태가 벌어졌다. 5회초 넥센이 8점을 앞선 상황에서 넥센 강정호 선수가 2루에서 3루로 도루하자 감정이 상한 두산 투수 윤명준이 넥센의 유한준과 김민성에게 연속으로 몸에 맞는 공을 던졌기 때문이다. '큰 점수차로 이기고 있을 때는 도루를 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을 어긴 것이 충돌의 원인이 됐다.

야구에는 공식적인 규정 외에 '암묵적인 룰(unwritten rule)'이란 무언의 불문율이 있다. 류현진은 메이저리그 데뷔전에서 타자로 나와 내야 땅볼을 친후 곧바로 뛰다 홈런의 야유를 받았다. '타자는 항상 전 경 변화에 대한 비음부담과 물물 물 쓰듯 많이 소모하는 농업생산구조에서 식량자급에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 비추어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확보를 위한 사업은 어려운 농업을 지속가능하게 할 미래의 희망이며, 국가의 중요한 부존자원인 수자원의 치수차원에서 만시지탄으로 서둘러야 한다.

불문율



밖으로 차 경기를 중단시키고, 농구에선 경기 막판 크게 앞설 때 작전타임을 부르지 않는 것이 예외다. CJ그룹 일가가 수천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사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고, 재계인사를 포함한 사회지도층 245명이 조세피탈수사회2팀장 bungy@kwangju.co.kr

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돈을 빼돌린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불문율의 기본 정신은 선수 보호, 즉 상대에 대한 배려다. 이런 사회 지도층에겐 높은 수준의 노력적 의무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불문율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인 듯 싶다.

기고



이은수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장

비교우위론을 적용한 미래 물의 가치

또한, 지표수로 대표되는 하천수는 쉽게 이용할 수 있어 먼저 고갈되거나 유량이 급격하게 줄어 이미 세계의 많은 강에서 물이 흐르지 않은 강으로 변하여 지하수의 이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곳곳에서 지하수위가 낮아지는 등 또 다른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지표수와 지하수의 과도한 이용은 수자원의 양질의 문제뿐 아니라 도시화와 산업화 등으로 쓰는 만큼 배출되는 오수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서 희석수가 점점 많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한다.

이 같은 물부족은 식량문제뿐 아니라 가난과 불평등성, 생존을 위한 이주 등 사회문제로 연결되며, 물순환 과정이 바뀌어 기후 후 무 환경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농촌용수의 다원적 가치 인식은 저변에 확산되어야 하며, 새로운 경제적, 정책적 제도를 통해 식량의 자급, 자연재해방지, 생태환경유지, 지하수 함양, 경관보전 등 공공재적 기능을 강화하면서 농촌의 어메니티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 관건은 물부족의 근본 해결은 수량 확보이다. 하지만 물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대규모 댐, 저수지, 운하 등 구조적 해결책에 의지하지 않고 국제무역 즉, 농산물 수입을 통해서 해결하는 새로운 방안이 가상수(Virtual Water) 및 물 발자국(Water Footprint) 이론의 등장이다.

가상수와 물 발자국 이론은 지구촌의 물 부족에 대비한 물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신개념으로 우리의 눈앞에 다가서고 있어 가뜰이나 어려운 한국 농업에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러한 가상수 및 물 발자국 이론은 90년대 초반 영국 런던대학교의 Tony Allan교수가 창시하였는데, Allan교수는 물부족 국가들이 물부족 문제를 대규모 댐, 운하 등을 만들어 공급을 늘리는 방법에 의지하지 않고, 국제무역 즉 농산물 수입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이론이다. 농산물속에는 재배과정에서부터 생산물까지 막대한 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론했한 것이다. 이것이 존재하나 보이지 않는 가상수 이론의 배경이다. 예컨대 1톤의 쌀을 생산할 때 소요되는 물이 1300m<sup>3</sup>이라면, 1톤의 쌀을 수입하면 수자원관리 측면에서 1300m<sup>3</sup>의 물을 수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는 것이다.

비교우위의 국제 교역여건에 가상수 이론을 적용한다면 수자원이 풍부한 국가가 농산물 등의 생산과 수출에 더 유리하므로 향후 국제교역의 경쟁력은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확보가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 물부족 국가의 물 의존도는 가상수와 물 발자국 이론이 도입된 국제 가상 물 교역을 통해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므로 수자원의 자급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형태라면지 우리나라와 같이 수자원이 부족한 나라는 물 교역을 통한 기후, 환경 변화에 대한 비음부담과 물물 물 쓰듯 많이 소모하는 농업생산구조에서 식량자급에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 비추어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확보를 위한 사업은 어려운 농업을 지속가능하게 할 미래의 희망이며, 국가의 중요한 부존자원인 수자원의 치수차원에서 만시지탄으로 서둘러야 한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김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鎔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인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제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 치 부 2200-612 체 육 부 2200-697
(대표 FAX 222-4918) (대표 FAX 222-4918) (대표 FAX 222-4918)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16 사 진 부 2200-693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매체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지 인 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